



**공부도 운동도 1등** 3대3 농구 고등부 결승전에서 광주공고팀과 장덕고팀이 불타름을 하고 있다. 광주공고가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걸그룹 비켜~** 송의중 댄스팀 '베아트리스'가 크레용팝의 '빠빠빠'에 맞춰 귀여운 안무를 선보여 관중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 青春, 활짝 피다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한바탕 끼와 재능을 발산한 축제가 열렸다.

지난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에서 '4대악 없는 밝은 세상! 함께 만들자 신나는 학교'를 주제로 열린 광주일보 주최 '2013 제2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에는 지역 청소년과 시민 등 8000여 명이 참여해 짙은 축제를 즐겼다.

이번 청소년축제에는 밴드 8개팀, 댄스 16개팀, 풍물 6개팀이 참여해 경연을 벌였다. 또 4대악 척결을 주제로 한 UCC공모전에는 7개팀이, 수기발표 및 토의에는 8개팀이 경합했다. 길거리 농구는 13개팀이 참가해 경기를 펼치는 등 축제 참가자만 모두 58개팀 500여명에 달했다.

부문별 최우수상은 밴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신고팀이, 댄스와 풍물은 살레시오여고가 각각 휩쓸었다.

4대악 척결 UCC공모전에서는 광주여상이, 수기발표 및 토의에서는 광주동신고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길거리 농구는 송의중과 광주공고가 각각 우승했다.

축제 중간중간에는 전남대 밴드동아리 로터스와 호남대 응원단 DRP 등 지역 대학 유명 동아리들이 공연을 펼쳐 흥을 돋웠다. 특설무대 주변에 마련된 대학과 광주시교육청 홍보부스에서는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학교폭력 추방합시다

광주 서부경찰서(서장 김재석) 경찰관들과 조대부고(교장 박영환)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모든걸 잊고 'Party time'** 제2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의 피날레 공연으로 준비된 '디제잉 파티'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와 열정을 발산하고 있다.



### 오늘은 섹시 컨셉

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살레시오여고 'Ti-na'팀이 앵콜 공연에서 섹시춤을 선보이고 있다.